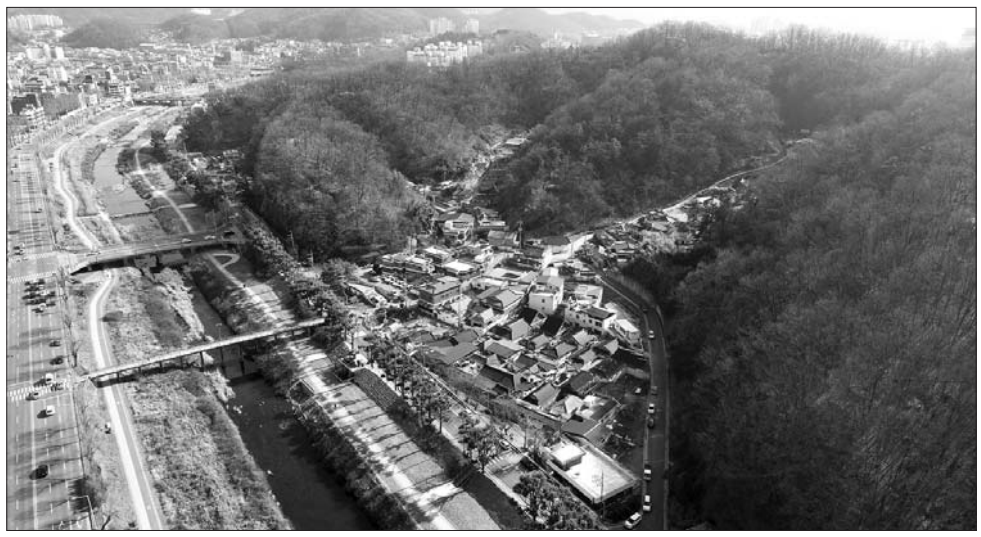
진북동 도토리골, 새뜰마을 신규대상 선정

전주시, 2022년까지 총사업비 43억 투입 생활여건 개선



항공에서 바라본 전주시 진북동 도토리골의 모습.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진북동 도토리골 주변이 국가 주도로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진북동 도로리골과 중화산1동 남터골 마을 일원이 사업대상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선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에 이어 세 번째로, 전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합심해 이뤄낸 쾌거이다.

도토리골 마을 일원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국·도비 34억 등 총 43억 원이 투입돼 노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도토리골은 해방 이후 다가산과 전주천 사이 다랭이 논에 난민들이 삼삼오오 거주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여름철 우기에 상습적인 침수가 잦았던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과 축대,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마을 곳곳에 공·폐가도 늘어났었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축대를 정비하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이후, 노후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와 텃밭 등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거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도토리골의 노후화된 주택과 골목길 등 취약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전주시, 이달부터 11월까지 호동골 양묘장서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오색빛깔 봄꽃들이 피어난 호동골 양묘장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이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호동골 양묘장 일원에서 전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꽃과 함께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호동골 양묘장은 전주시가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가꾸면서 나비와 벌이 찾아드는 환경으로 탈바꿈됐다.

이번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은 전주시와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등 인근 시·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가족·친구 등 10인 이상 전주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한 어린이들은 전주시 양묘장의 꽃과 어우러진 자연 학습 공간에서 뛰어 놀면서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계절에 따른 꽃 이야기 △숲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곤충 관찰 △다양한 자연재료를 통한 체험활동 등으로 직접 보고 만져봄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자연을 가장 편안한 놀이터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 등이다.

시는 매주 화요일·수요일·목요일에 진행되는 자연놀이터 정기 프로그램과 함께 꽃의 파종과 발아, 이식, 화단·화분 식재까지 꽃의 일생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100일 장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월 단위 정기 프로그램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forest366@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063-281-2888) 또는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063-285-0515)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혹서기 한옥마을 등에 물놀이시설 설치

올 여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여행객과 가족단위 시민들을 위해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을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여름방학 및 여름휴가철 동안 전주한옥마을 한벽문화관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종합경기장 3개소에서 여름철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여름철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이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벽문화관에 약 900㎡규모의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종합경기장에는 전주시민들이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각각 약 4,000㎡규모의 물놀이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워터슬라이드와 물놀이 풀장, 유아풀장, 샤워터널,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물놀이시설 운영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맡게 되며, 이들 기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을 위해 6월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벚꽃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4월 벚꽃 개화시즌을 맞아 전주시민과 상춘객들에게 '꽃심의도시 전주'의 산뜻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해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소 덕진구는 365일 주(야)간 불법광고물 정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벚꽃 개화시즌에는 덕진구청 앞 벚꽃로, 아중호수 둘레길 및 번영로와 조경단로 등 관내 벚꽃명소 5개소를 집중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아중호수 벚꽃길과 동물원 일대를 특별정비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벚꽃 명소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손상시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정비반을 편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비할 내용은 △각종 지류 및 벽보 △전단지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 정비효과가 큰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송효철 기자

'4~5월 봄 행락철 안전하게' | 전북경찰 교통안전책 추진

전북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 주의보와 함께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봄 행락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대형사고 방지 및 도내 지역 축제장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주간 대대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3년 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4~5월 봄철 월평균 사망자는 24.3명으로 이 중, 행락철이 시작되는 4월(24.3명)에는 3월(18.7명) 대비 29.9%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형버스 사고(6.5건)는 전체 월평균(5.1건) 대비 27.4% 증가한다.

이에 경찰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훼손 된 교통안전시설 개선하고, 졸음운전 예방 등 안전운전을 홍보한다.

홍보는 도내 전세버스 업체 100개소 등 운수업체와 학교당국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속도로 VMS(96대)를 적극 활용해 '깜빡이 켜기' 집중 홍보 계획과 연계해 관할 옥외 전광판, 공공기관 등에 홍보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전단지·현수막 등을 제작해 게시한다.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고요인별 맞춤형 현장 단속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집중 활용해 전세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난폭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위험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사고다발구역 265개소 및 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내 다수 축제·행사가 개최 예정으로 행락객들과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 최대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체예상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 관리 및 차량 소통 관리를 강화하고 행사장 주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불시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행락철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및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대형버스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이식 신임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임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장기이식센터 신임 센터장에 신장내과 이식 교수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식 신임 소장은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장기이식센터 운영과 각종 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 관련 정책과 계획수립,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장기이식에 필요한 검사와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의 심의 조정,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뇌사자 관리를 통해 1998년부터 2019년 3월말 현재까지 211명이 전북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했고, 이를 통해 모두 746명이 장기이식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됐다.

이식 신임 센터장은 "우리 병원은 장기이식을 위한 수술환경과 실력 등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 있다."며,"장기이식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통해 이식 수술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만성질환자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임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후보 방해' 현직 교수 구속 영장

전북경찰청, 신청키로… "개입 의혹 경찰관에 적절한 조치"

전북경찰이 지난해 치러진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한 후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대 한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청장은 "구속영장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더욱 면밀히 살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교수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동이 부적절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선거운동 기간 경찰청 소속 A경감이 일부 교수에게 '이남호 총장의 비리와 관련해 통화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촉발됐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비리 내사설' 등으로 불거져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 쟁점화 됐으며. 이남호 후보는 선거에서 43.10%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치면서 2위에 그쳤다.

/강석훈 기자

도내 대학가 '김정은·전대협' 표방 대자보 발견

'남조선 체제 전복' 적혀있어

현 정부 비판 내용도 담겨

전국 대학가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된 가운데 전북 대학가에도 대자보가 발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우석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해 수거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자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자보 말미에는 오는 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며 동참을 유도했다.

대자보 게시를 주도한 '전대협'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반 문재인 결사체'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자보가 확인된 대학교는 한 곳이다"면서 "다른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대협'은 전날 오후 11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지역 18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인 사진을 올렸다.

/강석훈 기자

선미촌 한복판에서 첫번째 시(詩) 낭독회

'골목의 날씨' 김정경 시인 초청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한복판에서 첫 번째 시(詩) 낭독회가 열렸다.

전주시는 최근 선미촌 예술가 책방 '물결서사'에서 김정경 시인 낭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물결서사 운영진이 첫 책을 출간한 신인작가를 초청해 독자들에게 책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첫 시집 '골목의 날씨'를 출간한 김정경 시인을 초청해 시집 속 작품을 함께 낭독하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김정경 시인이 첫 시집에서 고른 시 10편 중 2편식 나누어 낭독하고, 중간중간 시에 얽힌 이야기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낭독회를 진행했다. 또, 질의응답과 작가 사인회도 이어졌다.

물결서사는 이날 낭독회에 이어 4월 한 달 간 신인작가의 행보를 응원하는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오는 6일에는 오후 2시부터 서양화가 김경모 작품 워크숍 '무민(無-mean)'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목욕합시다'의 저자 조아라 작가와 책을 출간한 1도씨(공연예술출판사) 허영균 대표가 함께 초청돼 '추적 북토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최근 첫 시집 '달이 기우는 비향'을 출간한 김성철 시인의 첫 시집 낭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8억여원 횡령 행정실 직원 실형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직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181차례에 걸쳐 총 8억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고가의 마사지,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고가의 마사지(140여 차례), 해외여행(10여 차례)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로 인해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미군 상대 바가지 요금 60대 택시기사 덜미

술에 취한 미군을 속여 과한 요금을 받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해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으로부터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군들이 대부분 한국말에 서툴고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실제 요금보다 10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카드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과한 요금을 결제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훈 기자